

## 강선주 교수님이 들려주는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

강선주 교수님은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서구 중심적이었던 기존의 역사 관점을 탈피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자 하는 'new world history' 를 전공했습니다. 기존의 유럽중심주의를 탈피한 역사교육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와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마주보는 세계사 교실 1》(2007),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공저, 2007),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공저, 2008), 《기억과 전쟁》(공저, 2009) 등이 있고, 번역한 책으로는 《글로벌 히스토리란 무엇인가: 세계사에서 지구사로, 역사학의 최전선》(휴머니스트, 2010)이 있습니다.

### 이슬람과 관련된 용어로, '이슬람, 중동, 아랍' 등이 있는데, 각각의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와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중동(middle east)' 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그 자체에 서구적 편견이 있습니다. 최근 역사 분야에서는 중동이라는 용어 대신에 서아시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학 쪽에서는 여전히 중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요. 중동이라는 용어가 19세기에 영국이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에 자기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하면서 한국 등은 '극동(far east)', 지중해 쪽은 '근동(near east)' 등 서구 중심적인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중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용어는 서구 중심적인 지역 표현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 서구인들이 지닌 호전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최근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와서 역사 분야에서는 서구중심주의를 탈피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중동'이라는 용어를 기피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세계사를 전공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유럽중심주의 역사관 때문에 유럽 중심으로 세계사가 편찬되었고, 상대적으로 이슬람 역사는 실제로 세계 역사상 이슬람 공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이 잘 안 되었고 연구하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슬람 세계가 얼마나 세계사적 공헌을 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주지의 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마셜 호지슨이 1960년대에 쓴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이은정 역, 사계절, 2006)을 보면, 새로운 세계사에서는 유럽만이 문화의 창조이자 주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슬람과 중국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사를 구성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이슬람 세계가 세계사에 공헌하고 있는 지점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중동이라는 말을 현지인들이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제가 터키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들 스스로 서구의 편견적 시선에 의해 바라봐진다는 것을 알지만 그 기준을 거부하려는 인식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리엔탈에 대해 갖는 느낌과 비슷하게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시선이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서구중심의 용어 자체에 대한 저항감이 있기도 합니다. 중동이라는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한 손에는 칼, 한손에는 코란을 들고 침략해 나갔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저항감이 지식인 중심으로 있다고 봅니다.

## ‘아랍, 이슬람, 무슬림’은 비슷한 말로 들리는데요, 어떤가요? 그리고 이란은 아랍이 아닌가요?

이슬람은 종교이고, 이를 믿는 이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랍은 민족의 이름이고,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 중 한 민족이 아랍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민족 중 아랍이 아닌 민족도 있습니다. 이란은 아리안이라는 의미인데 아리안족이 이란인입니다. 인도유럽어족이 기원전 2000년경에 이동해 나가면서 페르시아 지역에도 이 아리안족이 들어가고 인도까지 뻗어나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란과 인도인들은 서로 친밀성을 갖고 있나요?

기원전 2~3세기경의 시기를 연구한 한 그리스의 지리학자가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의 종교가 가진 공통된 관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멸, 영생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각 종교에서 발견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리학자는 이것의 원인을 몰랐지만, 이후 언어학자들이 인도유럽어족이 퍼져나가면서 각 지역에서 고유한 신앙체계가 조금씩 다르게 발달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인도유럽어족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 갔는데 그리스,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 히타이트 쪽으로 퍼져 나가서 고유한 전통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슬람세계가 가진 문화적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등, 형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피부색, 민족,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해진다는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아랍민족주의로 아랍민족을 우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모든 것에 평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선례로 몽골제국시기에 유라시아 전체가 몽골제국이 되면서 몽골의 칸 한 사람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한 후 이슬람교가 몽골전역에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무슬림이 여행을 하면 그 이유 하나로 어디 가서든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같은 이슬람교는 형제로서 서로를 돕는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이외에도 여러 요소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기독교나 불교와 다른 특징이라면 무슬림의 연대의식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밀을 털어놓고 서로 얘기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이븐바투타’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14세기에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까지 여행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무슬림지역이지만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의 형제애를 알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예 무역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이슬람 상인이었습니다. 흑인 차별과 관련된 원죄는 유럽을 말할 수 있지만, 노예시장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프리카이고, 아프리카 내에서 아프리카 밖으로 노예무역을 시작한 이들은 이슬람 상인입니다. 이슬람상인이 노예무역을 해서 서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갔지만, 그들이 노예를 대했던 방식이 유럽인들이 노예를 대했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노예제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기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노예를 대한 방식은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지만, 이슬람 상인은 피부색이 달라도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면 모두를 평등하게 가족처럼 대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슬

람은 인종주의는 없지만 종족주의는 조금씩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이슬람이라도 아랍민족, 크루드족, 이란족에 대한 종족주의는 시기적으로 다르게 있습니다. 특히 근대로 들어오면서 종족주의가 이슬람 세계에서 긴장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이슬람 지역의 지역 간, 소수민족 간 갈등이나 분쟁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냉전시기에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이데올로기였지만, 사무엘 헌팅턴이 이슬람, 기독교 문명의 충돌을 이야기했듯이 십자군 전쟁 때부터 이 두 문명이 갈등을 오랫동안 빚어 왔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서로 교류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문화적 혼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아시아 지역의 분쟁을 보면 이는 문명 간의 충돌이 아니라 더 면밀히 보면 자원을 둘러싼 권력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아시아의 소수민족은 팔레스타인족, 크루드족인데 팔레스타인은 아랍민족이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지원을 받지만, 크루드족은 이란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분쟁만 놓고 보자면, 유대인들의 고대사회부터의 핍박받았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독특한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종족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에 의해 자기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전쟁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동시에 팔레스타인들에게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 지역에 두 종족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영국에게 있지만 두 나라가 싸우는 형식으로 온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뒤에는 서구국가들이 있고, 최근 UN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받은 팔레스타인에게는 사실 아랍민족의 지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 역사적 문제가 걸려 있지만 서아시아 다른 종족들 간의 분쟁도 많은데 종교적 분쟁보다 경제적 분쟁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보자면 이러한 분쟁의 이면에는 이들 뒤에 있는 서구국가들도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 세계관계구도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을 통제하려는 서구의 의지가 다양한 명분의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란과 이라크 간, 이란과 쿠웨이트 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의 문제들을 설명하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통합과 변화 및 유지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서아시아에서 크루드족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팔레스타인은 최근 UN에서 국가 지위를 보장받는 정도에 이르렀지만, 크루드족은 지금 지원을 하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는 크루드족을 지원할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크루드족은 인도유럽어족 중 하나의 종족이고 이슬람 중에 수니파입니다. 같은 이슬람이지만 종족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종족간의 갈등은 국민국가가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근대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착지를 잃어버린 경우가 할 수 있습니다. 크루드족은 이라크, 터키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소수민족정책을 점차 유하게 쓰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올리볼리 동화에 등장하는 이란, 팔레스타인, 티베트,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에 퍼져있는 이슬람 문화 간의 차이는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차이는 인도네시아와 이란의 경우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성역할을 상당히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집안팎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을 막고, 가정에서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내에서는 역할이 동등하다는 점에서 유별이지, 차별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차별적인 구조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관념 자체에서는 유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교문화권에 들어가는 동남아시아는 여성이 소상인 활동을 통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이 경제적 활동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19세기에 유럽남성들이 인도네시아 여성과 전략적으로 결혼하여 재산을 가져오려고 했을 때 여성의 재산소유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실패했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이슬람교가 각 지역에 들어가면서 풍토에 맞게 혼합이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형되었다는 점이 특성입니다. 아프리카의 경우도 13-14세기의 기록을 보면 남자가 쉽게 공격으로 소통했다는 것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풍토에 따라 이슬람의 율법과 규범이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아랍문화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란의 경우는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랍지역이 좀 더 여성 차별적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여성할레도 아랍의 전통 중 하나입니다. 남성의 성적쾌락은 극대화시키고 여성은 무감하게 만드는 이러한 할레의 의식이 이슬람에서는 보통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시행됩니다. 할레 자체는 이슬람 전통은 아니지만 어떤 민족의 특징이 이슬람과 결합한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여성은 일종의 유혹하는 사람으로 의미되므로 남성을 유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거하는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여성의 옷차림도 그 예입니다.

## 페르시아와 아랍은 어떻게 다른가요? 페르시아 여성의 옷차림이 오히려 유혹적인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것은 할람과 관련이 된 건데, 이슬람 왕조가 오니아드, 아바스, 이란지역의 사파비, 터키, 이라크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오스만 왕조가 있습니다. 보통 할람은 여성의 공간입니다. 이슬람이 일부다처제 전통이 있고, 특히 왕실에서는 더 많은 지역의 여성을 결혼관계로 맺어 권력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봤을 때 할람은 왕실 안에 있는 여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처들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처부터 위계를 정해 여성들만의 공간이 있었는데, 다른 남성은 못 들어가고 왕만 들어갈 수 있는 할람의 공간에서는 의상규율도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할람에서의 여성옷차림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은 서구가 만들어 낸 이슬람의 이미지(알라딘 등)입니다. 이슬람 역사로 들어가면 제국을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 다른 민족과 같은 잔인성, 예를 들면 왕이 아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슬람 아이들의 교육, 어린이에 대한 대접, 규율은 어떠한가요?

현대사회에서 이슬람 사회에서의 어린이를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슬람사회는 특히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슬람 지역의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에 노동하고 있고, 터키와 같은 지역은 완전히 유럽화된 교육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와 같은 자원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부가 사회적으로 활용되면서 그 혜택을 어린이들이 받고 있지만, 분쟁지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총쏘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슬람지역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이슬람식 교육, 즉 코란, 이슬람 율법, 생활규범 등을 배우고 여러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을 배웁니다. 여성교육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탈레반은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로 철저하게 여성의 교육을 차단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정규교육을 받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은 여성과 남성이 정규교육의 커리큘럼 측면에서는 비슷할 것으로

됩니다. 이슬람의 평등을 지향하는 문화로 봐서 부를 축적한 나라의 경우 기부를 통한 혜택도 많은 이들이 받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잘못된 통념, 편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이슬람에 무관심하므로 통념, 편견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견조차 최근에 마스크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일부다처제, 돼지고기 금기 문화, 왼손-오른손 용도 차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라는 제도적 특징은 이슬람 전체를 비문명, 야만으로 취급하게 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조선시대만 해도 제도적으로는 일부일처제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일부다처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일부다처제와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와의 차이가 있다면 조선시대는 그들간의 위계를 처와 첩으로 분리했다면, 이슬람에서는 여러 처들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슬람에서의 일부다처제는 유목사회에서 계속된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4명까지 처를 둘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고 있는 남성은 상당한 부의 소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부의 과시나, 남성의 야만적 행위로 보기 보다 한 사람의 부를 여럿과 나누는 사회적 공헌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금기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독특한 청결관념이 쉽게 상하고 오염되는 돼지고기의 특징을 금기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슬람은 청결과 위생을 오래전부터 중시해왔고,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서구지역보다 이슬람에서 먼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이 영국, 유럽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왼손-오른손을 구분하는 것도 이슬람의 특별한 청결관념, 질병예방의 차원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통념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판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무슬림들의 이러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음식문화, 독특한 인사방식, 매일 5회의 경배를 하는 등의 관습은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 무슬림들이 기독교, 유대교 등 다른 종교를 바라보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이슬람교가 무력으로 진압한 나라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아시아 지역 일부, 지중해, 북아프리카 지역 등 옴니아드 왕조 때 점령했던 곳을 제외하고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상인들이 전파한 지역입니다. 이슬람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 관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잔틴제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제국으로 편입되기보다 이슬람제국에 협조했던 까닭은 그게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강요도 없고, 이란, 이라크, 터키 등 여러 국가에는 다른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14세기 이후 터키공화국이 생기기 전까지 이슬람 제국을 보면 인두세(사람에게 부과하는 세)만 내면 개종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교로 개종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나, 종교의 체계성 때문에 개종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슬람에는 기독교 등에 있는 선교활동이 없습니다. 접을 치거나 하는 '수피'라는 신비주의자는 있었지만 이들은 개종, 선교의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지역에 개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 선교 등은 그들에게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한국과 이슬람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어떠한가요?

이슬람교가 7세기에 만들어 졌습니다. 마호메트가 상업활동을 장려했고, 실크로드를 통한 교류가 활

발해지면서 육로뿐만 아니라 바닷길을 통한 왕래도 활발해졌습니다. 중국 당나라가 상당히 국제적이어서 무슬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황소의난때 당나라에 살던 무슬림들이 부를 많이 축적했다는 이유로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그 때 당나라를 통해 신라인과 무슬림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처용이 무슬림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처용가에 나오는 독특한 노랫말과 돌로된 처용상에 보이는 얼굴이 눈이 크고, 이목구비가 유독 뚜렷하다는 점으로 볼 때 아라비아 계통이라고 추측됩니다. 신라와 이슬람과의 교류는 9세기, 12세기 경의 아랍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2세기 아랍지역의 지도에 신라가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9세기 아바스 왕조에서 만들어진 책에는 신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2세기이면 고려시대일 텐데 그 이전에 왕래가 있었던 신라의 흔적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고려는 아라비아상인들에 의해 나중에 알려지는데 이는 원나라, 몽골식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삼국유사의 처용가, 이슬람에 남아있는 기록에 신라가 등장한다는 것, 조선왕조 초기에 서술된 고려사에 이슬람교가 '회'라는 명칭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슬람과의 교류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선초기에 고려의 유습을 많이 없애려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슬람과 혼합된 고려문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서술을 보면 개경에 무슬림타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팔았던 기록들도 있고 이러한 고려의 유습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의 초기까지는 이슬람상인들의 왕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실의 행사가 있을 때 온 외부의 사신 중 일부가 이슬람 사신이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성리학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사대주의가 확산되고, 국내 농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외무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해금정책을 쓰면서 이슬람과의 단절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 15세기 이전은 이슬람 상인의 해상무역 장악력이 강했고, 15세기 이후는 유럽인이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당시 조선은 중국, 일본 등과도 제한된 무역만을 했기 때문에 이슬람과의 무역도 사라져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는 이슬람 상인과 무역활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여러 풍습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나 이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히잡이나, 차도르, 부르카, 토브 등의 전통의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히잡은 주로 이란지역에서 쓰는데 머리정도 가리는 흰색, 검정색의 모양이고, 차도르는 검정색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리는 데 씁니다. 부르카는 가장 많은 부위를 가리는데 얼굴조차도 망사로 가릴 정도로 전체를 다 가립니다. 탈레반이 주로 부르카를 사용합니다. 전통의상은 여성의 신체를 다 가리는 목적으로 쓰이는데 이슬람에서 여성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어떤 의상을 채택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넓은 이슬람문화권에서 부를 갖고 있는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어떠한가요?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차이이기 보다 OPEC이라는 석유수출국 기구 안에서 누가 가격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쿠웨이트와 이라크 전쟁이 가격을 올리려던 이라크와 미국이 쿠웨이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것처럼, 그들간의 갈등이라기보다 이는 미국이 개입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산유국은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것일 뿐이지 이를 산유국과의 갈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갈등은 근대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석탄 다음에 개발된 자원이 석유이므로 시기적으로는 1900년대 초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종교분쟁처럼 보이는 최근의 분쟁들은 사실상 경제, 정치적 갈등입니다. 종교적 갈등이라 할 수 있는 시아파, 수니파의 갈등은 이전부터 이란, 이라크 사이에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갈등으로 번질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이슬람인들이 모인 알카에다의 조직적 테러도 언뜻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아랍세계를 좌지우지 하려는 서구세력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알카에다의 테러가 이슬람세계의 전면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개별적 테러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세계에서의 성전은 이슬람을 침범하는 국가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지,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행위는 성전의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서구가 이슬람을 압박해 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은근히 알카에다를 지지하기도 했지만, 결국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에서 보듯이 서방의 압력을 결국은 이기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 올리볼리 이란동화 중 벽에 씌여진 이야기를 보면 정치권력에 대한 우화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란동화의 특징은 어디에서 연유되는 것이지요?

왕권이 강했던 이란의 사파비왕조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계승이 아니라 똑똑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사파비왕조의 특징은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아들 중 한명만 남겨두고 모두 처단한다거나, 왕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만제국에서도 일찌감치 기독교의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데려와 키워서 용병으로 삼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기독교 어린아이들이 용병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교도들을 데려올지 말지, 신뢰할지 말지 하는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남아있고 이러한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 전해 내려오는 동화, 우화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적 맥락에서만 파악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므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슬람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참고문헌을 소개해 주세요.

현대 한국사회를 이해하려면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현재의 이슬람사회를 이해하려면 이슬람세계가 형성될 당시의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슬람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나라는 아랍민족을 중심으로 한 이라크와 페르시아 문화가 가미된 이란입니다.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파비, 오스만 왕조를 공부해서 어떻게 이것이 변형되고 있는 지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인이 쓴 것으로는 이희수 교수가 쓴 여러 책들을 참조하는 것도 좋고, 케임브리지 시리즈에서 나온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프랜시스 로빈슨 외 지음, 손주영 역, 시공사, 2002)도 좋습니다. 중동사라는 책은 서구가 바라보는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 이은정 교수께서 이 분야 전문가이므로, 이분이 번역한 책들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이은정 역, 사계절, 2006)도 추천합니다.

\*여성 할례(여성 성기 절제술, Female Genital Mutilation, 약자 FGM)는 여성의 성년식 중 하나로 여성 성기의 음핵 표피만을 제거하는 시술에서 표피, 음핵, 소음순, 대음순 등을 모두 제거하는 시술까지 방식은 다양하다. 여성할례에 대한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대략 5천 년 전부

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출처 : 위키백과)

\*\*처용을 아랍, 페르시아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처용 설화의 배경인 울산 개운포가 통일 신라 시대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던 곳이며 많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개운포에 와서 신라와 국제 무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2010년 발견된 쿠쉬나메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쿠쉬나메는 7세기 사산조 페르시아의 멸망 후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아랍권의 서사시이다. 쿠쉬나메의 내용에 따르면 사산조 페르시아 멸망 후 페르시아 유민들은 중국, 신라로 망명하게 된다. 삼국유사에는 “개운포에서 자욱한 안개와 함께 험강왕 앞에 나타난 자들이 동해 용왕과 일곱 아들이고 그 가운데 막내를 경주에 데려와 베틀을 주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쿠쉬나메에서 아비틴이 페르시아 유민들과 함께 “신라로 기항해 항구에서 신라왕 타이후르의 아들 가람의 영접을 받았으며, 왕정을 보좌하고 왕과의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신라의 공주 프라랑과 결혼한다”는 내용과 유사하다. 그 동안 한국에 알려져 있지 않던 쿠쉬나메 자료는 한양대 이희수 교수에 의해 확인됐다. (참고, 뉴시스 12월 8일 2010년 고은희 기자 기사)